무주·영동·금산군 뭉쳤다

'3도 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무주서 개최… 2025년도 공동사업추진 방안 논의

'3도 3군 관광협의회(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가 지난 24일 무주에서 뭉쳤다.

이날 만남은 2025년도 3도 3군 관광협의회(사무국 무주군) 공동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전북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충북 영동군 정영철 군수, 충남 금산군 박범인 군수를 비롯한 각 지역 관광 분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앞으로도 각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방침으로,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공동홍보물 제작과 △연계 협력사업 개발,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해외홍보 마케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교민 교류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 K-festival 한국축제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공동 홍보 부스 운영 계획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접해 있는 3개 지역이 관광은 물론, 농특산물과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부내륙권 대표 관광벨트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3도 3군 관광협의회를 통한 상생 노력이 세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도 3군 관광협의회(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가 지난 24일 무주에서 뭉쳤다.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이 세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지는 취지에서 발족한 것으로, 그간 △무주군의 태권도원과 구천동계곡을 비롯한 영동, 금산군의 대표 관광지(와인터널, 월류봉, 약초시장, 월영산 출렁다리 등)와 △농·특산물(무주 천마, 영동 포도, 금산 인삼) 등 먹거리를 연계한 정기상품, △수도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티 투어 상품, △온라인 블로거단 행사 등 비정기 상품 등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 2세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3도 3군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세계한인회총연합회로터 '2024 공공외교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쳐 관광객 유치에도 성과를 보이는 등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가결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드론산업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의 위탁 규정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 활성화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장수군만의 특색 있는 드론 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산업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정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장수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한 범죄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치안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치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 실현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 교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의회기 규격 정비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 의회기의 규격을 정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남수 의원은 "개정을 통해 장수군 의회기 규격을 정비하여 입법기관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되었으면 좋겠고,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고 소통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교통정책평가 2관왕

진안군은 지난 24일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한 2024년도 건설교통시책 평가에서 '대중교통 정책분야 최우수상'과 '도로 유지관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시와 군 단위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선정하는 이번 평가는 건설교통 시책 5개 분야에서 진행된 것으로, 진안군은 그중 2개 분야인 대중교통 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에, 도로 유지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24일 부안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87차 월례회에서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동 의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편성기준 합리화와 근무연수에 맞는 호봉 인상 등을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최대 10호봉으로 제한함에 따라 최대 31호봉을 적용하는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 의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이 시도별 인건비 지급체계에 따라 처우가 달라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 강화와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 불인정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부안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87차 월례회에서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업 재해 복구 지원금 1억9000만원 투입

무주군이 올해 7월과 9월에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복구지원금을 지급(국·도비 포함 총 1억 9천만 원)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분야별 피해 접수를 받아 농업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과 심사를 진행,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은 농기계 파손과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인삼 고사 등의 폭염 피해, 벼멸구 확산 등의 피해를 입은 3백여 농가로, 규모는 농기계가 파손된 곳이 4농가, 벼 도복 및 작물 피해를 입은 곳 225농가(70ha), 인삼 고사 75농가(26.5ha), 벼멸구 피해 5농가(1.6ha)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25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오는 1월 1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2025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사업비 26억원 규모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시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등 27개 사업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 미래형 과원 조성, 이상기상 대응 과수 품질향상,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등이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실천 의지가 강한 자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장수군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 접수를 마친 후, 1월 하순에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초 최종 사업대장사를 선정하고, 영농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3-350-2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